

北, 다목적 포석 노린 의도적 포격

“한·미훈련 견제, 南軍 대응태세 떠보기, 대북정책 전환압박”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동북쪽 해상에서 잇단 포격으로 긴장 조성에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북한은 11일 우리 군에 전통문을 보내 발파작업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과 다른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10일 오후 1시경에 이어 오후 7시46분께 같은 지역에서 해안포로 추정되는 2발의 포격을 가했다. 이 가운데 1발은 NLL 인근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포격 이후 K-9 자주포로 각각 3발씩, 총 6발의 대응사격에 나섰지만 남북 간 직접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군이 NLL을 겨냥해 잇따라 포격을 한 점에 비해 단순한 훈련이나 오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군과 대북 전문가들은 다목적 포석을 노린 북한의 의도적 포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16일부터 한미 양국 군이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UFG 연습에 대한 경고와 함께 NLL 분쟁지역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창설한 우리 군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의 대응태세를 떠보기 위

한 의도적 포격을 잡치는 시각도 있다. 북측의 포격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NLL 인근에 포탄이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를 지명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해군사령부를 시찰한 것과의 관련성도 주목된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북측 내부 갈등의 표출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대북 수해지원과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일각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상황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측 강경세력의 도발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공작조가 대북 강경대응을 위

지해은 김관진 국방장관 암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도 북측 강경파의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으로는 오는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포 사격과 관계없이 인도적 수해지원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이번 수해지원은 적십자 차원의 순수 인도적 지원이며,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다면 예정된 절차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빅토리아 놀랜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간 포 사격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5·18 구속부상자회와 5·18 민주유공자회설립추진위원회 소속 회원 150여명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5공 비리 주변 안현대세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이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규탄하며 석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독도 특위 상설화 추진 오늘 독도회의 연기

독도 문제에 대한 항구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국회 독도 관련 특별위원회를 격상시켜 상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 소속인 장세환(민주당) 의원은 11일 독도 영토 수호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독도특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위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독도특위는 여야 합의로 가동되는 비상설 특위로 17대 국회 때인 2005년 4~12월 처음 가동됐으며 지금까지 17대와 18대 국회에서 각각 두 차례씩 구성된 바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제4기 독도특위는 지난해 4월 구성됐으며, 오는 연말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 구성된 상설 특위는 예결위와 윤리위 등 2개이다.

장 의원은 “독도 특위가 상설화하면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국내외 여론 조성과 국제법적 대응책 등 더욱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독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특위 전체회의는 기상 악화로 또다시 연기됐다. 독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독도에서 열려던 독도특위 전체회의를 기상악화 예보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노 시의원, 광주시 사회복지행정 칭찬 눈길

민주노동당 소속 광주시의원이 11일 광주시 사회복지행정에 대해 칭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은미 시의원은 최근 광주시가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이 이는 생활시설 2곳을 적발한 것과 관련, “광주시가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를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것은 인권평화도시를 위한 광주

시 노력의 일환으로 돋보였다”라며 “앞으로도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재조사는 표본조사가 아닌 시설장, 운영주체, 종사자 등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광주시는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권고사항이 자치구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

화정주공 재건축 비대위 권리가액 인상대책 요구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이 조성되는 광주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사업비 절감을 통한 조합원 권리가액 인상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재건축 자체를 무산시키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 분양신청 마감으로 분양신청자와 현금청산자로 구분되긴 했지만 권리가액 인상 없이는 조합원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일반분양가를 높이고 지하주차장 면적을 대지면적의 80%만 적용하는 등 건축비용을 절감하면 권리가액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광주시는 권리가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광주시의회는 과다한 건축비용과 사업비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확한 실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리처분 총회에서 재건축 자체를 무산시키고 분양신청 무효 소송을 끝까지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시 ‘남악’ 명칭 사용 마라”

명칭 신설 움직임에 무안 주민들 반발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 남악신도시의 명칭을 인근 목포시가 관할동 이름으로 사용하려고 하자 무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정영덕 의원(민주·무안 2)은 11일 도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목포시가 옥암지구 신설동 명칭을 남악동으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고 있고 앞으로 남악리는 남악동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됨에도 목포시가 옥암동과 부흥동 일부를 남악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무안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목포시는 신설동의 명칭을 주민 설문조사를 빙자해 남악동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면 그렇지 않으면 무안군민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목포시는 남악동으로 하는데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일본, 세계사에도 없는 무례한 도발행위”

문혜옥 복구의원, 율령도 방문 दि의원들에 항의편지

광주의 한 구의원이 최근 율령도 방문을 시도한 일본 의원들에게 항의편지를 보내 화제다.

광주 복구의원 문혜옥(여·48) 의원은 11일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중의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등 3명에게 국제우편을 보냈다.

문 의원은 편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 36년 강제 점령 때 강제노역, 위안부 문제 등 고통을 겪었지만 지난 3월 일본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모금운동까지

전개했다”며 “그러나 일본의 최근 행태는 이웃사촌인 두 나라 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독도는 과거에 대한 일본의 인식,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바라보는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오늘날 일본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한국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사에도 없는 일이며 무례한 도발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785년 일본 지도제작자

대가인 하야시가 조선, 일본, 중국 동북지방 등을 그린 ‘죽자평지도(林子平地圖)’연도’ 등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 자료를 함께 보냈다.

문 의원은 일본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배경에 대해 “3살 먹은 아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은 일제 강점기나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치유 노력이나 반성도 없이 내 집에서 들어와서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민의 울분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 일	영 업 시 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토·일 공휴일	영 업 시 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율령도 추천오리

약오리 배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한방오리구이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율떡찜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쉐프의 상차림 율떡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점심특선

봉선동 율떡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 광주1등맛집 • 다담회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